

안녕하세요
황은지입니다.



저는 그림을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됐습니다.



그림은 저에게 양가적인
감정들을 전달했고 결국 애증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완벽주의가 있어서
완성에 대한 집착과
도피가 조금 있습니다만...

조금씩
바뀌

내고
있습니다!



“장근 김만

아니오

장근 한계

전다강고

실은

내가

전다

전다 되면

“전다”





그래서
이번엔
좀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해봤습니다.

신나서
작업한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최대한 재미있게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열심히도

할겁니다



END